

[여호수아 성경학교]

전문인 선교의 성경적·역사적 기반 및 다양한 전략

임도현 FMB 대표 / 2001 / 페이지수: 2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립보서 2:6~8)

앞으로 당면하게 될 선교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들에게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선교는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선교를 위해 훈련 받는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

먼저 우리가 이 훈련을 받기위해 이 모임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1. 선교학교가 하나님의 과정, 학점을 위한 수단,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도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와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선교사의 삶은 훈련을 통한 배움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 그대로 선교에 반영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2. 선교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멋진 선교사(전문인선교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와있을 수도 있다. 선교사는 하나님을 믿는 시점에서부터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반드시 훈련을 통한다고 해서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선교사이든 전문인선교사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3.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여기에 와있을 수도 있다. 선교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하며 전도생활이 필연적이다. 선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선교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절대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전도를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한 삶이다. 그것을 통해 전도가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천국이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 선교의 현장에서 나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선교에 열정적이지 않게 된다. 선교는 이론적이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 안에 샘 솟는 기쁨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

선교의 기본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21C에는 민족 대이동이 있을 것이다. 20C까지의 이동은 먹고 살기 위해 이동한 것이다. 21C의 대이동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선교는

한 사람의 개인단결이 아니라 이러한 민족 대이동이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교의 핵심 포인트는 생명력이다.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친밀감이다. 우리는 전도여행을 많이 떠난다. 전도여행 시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음성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해야 한다. 선교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24시간 끊임없는 교제이며,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지성소가 되어야 한다.

21C의 선교는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전문인 직업선교는 전인적인 선교를 지향한다. 전문인 직업선교는 직업적인 전문성과 함께 사역적인 전문성을 더한다. 직업적인 전문성은 선교에 대해 알기 시작한 때부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역적인 전문성은 여러 가지 많으나 특별히 상담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전문인 선교사로 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인 어떨까?

*** 출처: 온누리신문**